

‘재일조선인여성’을 읽다

: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

송혜원

오사카공립대학 조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선행연구와 문자자료의 가능성
 - 2.1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천
 - 2.2 ‘문학’과 ‘에고 도큐먼트’와 ‘그 사이에 있는 것’
- 3 작품 선정과 편집을 둘러싸고
- 4 1세 여성들의 작문을 읽다
 - 4.1 조선어 작품
 - 4.2 일본어 작품
- 5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비: 일본 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기반연구(C) 20K00533

이 글은 공적인 기록에 남겨지는 일이 드물었던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1세 여성)을 문자자료를 단서로 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다루는 기간은 1945년 8월 15일 식민지해방 후부터 약 35년간, 즉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대부분 1세 여성들은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글로 써서 남길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태껏 목살되어 온 조선어에 의한 라이팅이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영향 아래 있던 재일 여성들이 쓴 라이팅에 주목해보면 해방 후 1세 여성들이 쓴 작품은 상당한 수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이 쓴 시, 수필, 수기, 예고 다큐먼트, 신문 투서, 학교 작문 등 폭넓은 라이팅을 검토 대상으로 함으로써 1세 여성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우선, 1세 여성들의 연구사를 정리해 보았다. 그 후, 필자가 2014년 일본에서 펴낸 『재일조선여성작품집1945-1984』 출판의 경위와 그 편집의 과정에서 깨달게 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1세 여성들이 실제로 조선어와 일본어로 쓴 작품들을 해독한다.

국문핵심어: 1세 여성, 재일조선인, 예고 다큐먼트, 문해교육, 『재일조선여성작품집』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태어난 고향인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재일조선인 1세 여성 (이하, 1세 여성으로 약칭)의 삶을 그녀들이 남긴 문자자료를 실마리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식민지로부터 해방(‘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 1980년대까지로, 즉 재일조선인 2세들과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약 35년간이다.

조선인 여성들의 일본 정주 경위를 보면, 식민지 시기에 방적이나 제사(製糸)

공장의 ‘여공’이나 해녀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거나, 또는 먼저 일본에 일하러 와 있던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와서, 그 후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세 여성 대부분은 1900년도부터 1920년대 사이에 태어났다. ‘해방’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일본에 20만 명의 조선인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 새로 일본에 건너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세 여성은 전후 일본에서 조선인 밀집 지역에서 살면서 주로 조선어를 사용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식민지 시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그녀들의 제한된 생활 세계는 “일본사회로부터 받는 차별로부터 생활을 지켜내기 위하여 친족의 결속을 필요로 했기”(宋連玉, 2005) 때문에, ‘해방’ 후에도 오랜 시간, 구태의연한 봉건적인 젠더 규범의 지배를 받았다.

일본에서 식민지 시기와 그 이후에 살았던 1세 여성들의 생활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1세 여성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역사 서적이 쓰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것은 1세 여성에 관한 일본의 공적 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1세 여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록된 자료뿐만이 아니라, 1세 여성이 쓴 작문 등의 자료도 거의 없다고 여겨져 왔다. 이 글에서는 여태까지의 이러한 전제를 깨뜨리면서, 어른이 된 후에 문해교육(일본어로는 “식자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 글자를 토대로 노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었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전제하에, 그녀들이 ‘해방’ 후에 어떻게 문자를 획득하고, 어떻게 자기표현을 했는가, 여성들의 작문을 어떻게 가시화하고, 위치 지어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이하와 같다. 우선, 1세 여성들에 관한 조사와 연구의 변천을 살펴본 다음에, 여성들에 관한 문자 자료에 대한 고찰을 행한다. 다음에, 발표자가 2014년에 일본에서 간행한 『재일조선여성 작품집 1945-1984』의 편집과 출판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세 여성이 실제로 쓴 조선어, 일본어의 작품을 독해한다.

2 선행연구와 문자자료의 가능성

2.1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천

재일조선인사 연구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남성들이 주도했던 재일민족단체의 역사로 접근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고, 젠더적 시점으로 논한 연구는 적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학술 연구에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여겨지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공적 기관의 문서, 외교 문서, 공문서, 조사 자료 등이다.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등이 그다음이다. 그런데, 재일조선인 여성의 경험은 일본의 공적 자료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연구를 행하는 데 치명적인 방해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재일조선인 여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해인 1965년이였다. ‘해방’되고 난 지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이때, 도쿄의 일본인 여성 그룹 ‘무궁화 모임’(구보 후미, 스가마 키미코, 히라바야시 히사에, 나카지마 쇼고, 우즈미 아이코, 세키구치 아키코)이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그녀들이 직면한 것은 “학술적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 “재일여성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곤란”, 그리고 “자료가 없다”라는 세 가지 어려움이었다고 한다¹. ‘무궁화 모임’이 행한 7년간에 걸친 인터뷰 조사의 성과는, 1972년에 『신세타령 재일조선인 여성의 반평생』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구성원 중의 한 명인 히라바야시 히사에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재일조선인 1세 여성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계속하여 귀중한 인터뷰 조사 기록을 영상이나 서적으로 남겨 두었다.

1970년대 전후에는 일본의 공적 기관인 야간 중학을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도쿄, 오사카 등의 도시에서 일어났다. 이때 일본어를 배울 기회를 얻은 1세 여성도 있었다. 1980년대가 되면, 이러한 야간 중학의 일본인 교사들이 학생인 1세 여성들의 생활사를 소개하게 된다. 이와이 요시코 岩井好子(1984, 1988), 이나토미 스스무 稲富進(1988, 1990) 등이다.

2000년대 이후 구술사연구의 중요성은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노년기를 맞은 1세 여성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그러한 성과로서, 박일분, 김윤순(2004), 카와사키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2000인 네트워크 생활사 인터뷰·편집위원회(2009), 카와다 후미코(2014) 등이 간행

1 菅間きみ子, 「むくげの会：在日朝鮮婦人の歴史の会」, 『朝鮮研究』 67号, 1967.11.

되었다. 한편, 송연옥(2005), 서아귀(2012), 이행리(2017, 2021) 등, 재일조선인 연구자에 의한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가 나온 것도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필자가 『재일조선여성작품집』을 간행한 것은 2014년이였다. 2019년에는 카와사키시 후레아이관이 주최하는 문해교육 학교에 다니는 1세와 2세 여성들의 작품을 모은 문집 『저도 시대의 일부입니다』가 간행되었다.

최근의 페미니즘 붐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국내외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65년 당시에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받았던 재일조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의의가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한 듯하다.

재일조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사는 그 시작이 그러했듯이, 인터뷰 조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의 아카데미즘에 구술사 연구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재일 1세 여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됐다. 이 시기는 제1세대가 고령화하고, 연이어 세상을 떠나간 시기와도 겹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강하고 용감한 할머니”와 같은 재일 1세의 ‘여성상’이나 이미지가 형성되어 갔다. 실제로 이제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인터뷰 기록이나 영상—다큐멘터리 영화 「HARUKO」, 「해녀 량씨」, 「꽃 할매」 등—의 대부분이 그러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여성 1세는 일본 사회에 무해하고 비정치화된 존재로 이해되어 수용되어 온 측면이 크다.

인터뷰 조사가 증언자의 현재 모습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현재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뷰 조사와 문헌 조사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제까지 주목받은 적이 적었던 문헌 조사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2.2 ‘문학’과 ‘에고 도큐먼트’와 ‘그 사이에 있는 것’

재일조선인 여성에 관한 일본의 공적 자료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커뮤니티 내의 간행물, 특히 신문(그중에 많은 것은 재일본조선인연합회(총련)와 전신단체의 조선어 신문)을 주목해 보면, 재일조선인 여성을 거론한 기

사는 일상적으로 게재되었으며, 그러한 기사의 수는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². 사실, 이 매체들은 1세 여성들의 편지, 일기, 신문 투고, 수기, 작문, 시 등을 게재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문이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재일조선인 여성을 쓰는 주체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녀들이 써놓은 작문이 여태까지 간과되어 온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에 의한 작문을 ‘문학작품’, ‘에고 도큐먼트’,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선 ‘문학’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현재 일본의 문학작품 생산, 유통, 수용의 시스템 하에서는, 일본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상업 문예잡지에 게재되거나 (혹은 게재된 듯한) 작품 이외에는 주목받는 것이 적다. 예를 들면, 1989년에 「유희」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이양지를 첫 재일조선인 여성 작가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³. 즉 ‘해방’ 후로부터 44년간 마치 재일조선인 여성이 아무것도 쓴 것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이양지 이전에도 1세나 2세 여성들은 시나 소설을 썼으며 발표해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문학평론이나 연구에서 이러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문학 활동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적은 없었다. 이렇게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문학 활동이 간과되었던 이유의 근저에는 젠더 의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 문학을 ‘일본문학’ 혹은 ‘일본어문학’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려는 일본어 중심주의가 있으며, 이는 식민지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전후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공, 반‘북조선’의 사조는, 1세 여성들의 작문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총련 주변 여성들의 문학 활동을 묵살하는 데 일조하였다.

두 번째로, ‘에고 도큐먼트’가 1세 여성 작문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에고 도큐먼트란, 편지, 일기, 자전, 회상록 등의 일인칭 서술을 말한다. 여성, 아

2 송혜원, 양순주 역, 「실종된 여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재일조선인 여성의 역사서술을 위하여(가제)」, 『오늘의 문예비평』, 2022년 봄호(통권 124호)는 이러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해방’ 후의 역사 서술을 시도해 본 것이다.

3 재일조선인 여성의 문학 활동은, 1971년에 『중추월 시집』을 간행한 중추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들, 외국인 등 공적 기록으로부터 제외된 역사로서 남겨지지 않고 쉽게 잊혀져 간 사람들의 자기 표현의 흔적을 더듬어 봄으로써 그들의 주체성을 세우려는 시도로, 최근 일본 역사학에서도 이러한 측면의 접근과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⁴. 재일조선인 여성들이 편지, 일기를 썼다는 것은 재일민족단체 발행의 신문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1세 여성들에게 편지는, 고향에 남겨진 가족, ‘해방’ 후에 남이나 북으로 이동한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몇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였다. 일기에 대해서는, 1세 여성의 식자 학습이 활기를 띠었던 1960년대 초에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일기 쓰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것을 계기로 일기를 쓰게 된 여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근대 초기부터 일기를 쓰는 문화가 정착해 있으며, 일기의 수집, 보존, 공개 작업이나 연구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⁵. 반면, 재일조선인들의 일기나 편지 등의 예고 도큐먼트의 수집이나 보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은 향후의 연구과제이며, 재일 1세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현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작문은, 기존의 의미 그대로의 ‘문학’도 아니고, 예고 도큐먼트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즉, 재일조선인 조직이나 단체가 발행한 신문, 잡지, 문예지, 동인지, 팸플릿, 작문집, 수기집 등에 게재된 편지, 일기, 시, 작문, 수기 등이다. 이 글들은 1970년대까지는 오로지 조선어로, 그 후는 일본어로도 쓰여졌다. 이러한 1세 여성들의 조선어 혹은 일본어 작문은, 권위를 부여받은 ‘문학 작품’이 아니며, 신문 잡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고 도큐먼트도 아니다. 또한, 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편집자의 가치관이 많은 적든 반영된 것이다. 재일민족단체 내부에서 쓰여진 여성의 작문은, 조선반도 남북대립의 영향을 받아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 1946년의 결성 당시의 명칭은 재일본조선거류민단)과 총련으로 분열되었던 두 단체의 이데올로기가 침투되어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 야간 중학 등에서 과제로 쓰여진 일본어 작문은, 일본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지도

4 2020년에 예고 도큐먼트에 관한 첫 전문서적인 하세가와 타카히코 편, 『예고 도큐먼트와 역사학』이 출판되었다. 이 서적에는 중세 이탈리아의 마녀 재판 수기, 에도의 유녀 일기 등 주변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고가 포함되어 있다.

5 西川祐子, 『日記をつづるといふこと：国民教育装置とその逸脱』, 吉川弘文館, 2009.

했던 학교 작문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작품들에는, 교사와 학생, 구지배자와 구피지배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꺼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중간적인 작품군 또한, 재일조선인 여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일조선인 여성의 작문을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그 목적은 이 세 가지의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것들의 경계, 즉 아카데미즘의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폭넓게 고찰 대상을 포함함으로써, 비로소 1세 여성의 작문은 논의 대상으로서 부상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재일조선인 여성의 작문은, 단일 언어주의, ‘문학’의 정의, 공문서를 정점으로 하는 듯한 사료의 서열화 등, 기존의 문학연구나 역사연구의 방법론을 재고하지 않는 한, 가시화할 수 없는 텍스트라는 것이다.

3 작품 선정과 편집을 둘러싸고

필자는 2014년에 『재일조선인 여성 작품집』(전 2집)을 편집하여 출판했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작문을 모아놓은 책으로서는 처음 출판된 것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사의 집필을 위해서 작가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나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작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가 된 작가들은 거의 전부 남성이었지만, 집을 방문하면 차나 과자를 내주시는 그들의 아내가 항상 있었다. 그러한 재일 1세나 2세(혹은 일본인 여성)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편의 작가 활동을 뒷바라지해온 그녀들 또한, 예전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거나, 실제로 작품을 쓴 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비평이나 연구의 공백기로 되어 있던 1945년부터 1970년 사이에 두 가지 언어로 행해진 문학 운동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그것은 남성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발행 잡지나 신문을 조사 하던 중에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식자 학습의 모습을 전달하는 기사, 일본어나 조선어로 쓰여진 여성들에 의한 작문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표현 행위를 무시하고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쓸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작문

을 ‘문학사’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외시켜 온 문학의 생산, 유통, 수용, 수상, 비평, 연구라고 하는 문학 시스템 자체를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해방’ 후의 식자 학습을 기점으로 한 문학사를 쓰게 되었다⁶. 『재일조선여성작품집』은 이때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엮은 것이다.

『재일조선여성작품집』의 구성은 이하와 같다.

1) ‘문학의 세계로’(15편)는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읽고 쓰기를 배운 여성들의 기록이다. 1950년대에 총련에서 조선어를 배운 사람도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의 야간 중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 사람도 있다. 습득한 언어는 다르더라도, 문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쁨의 감정이 다를 리가 없다.

2) ‘동포들과 함께’(36편)에는 동포 커뮤니티 내의 민족 해방이나 여성 해방의 모색의 궤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을 모았다. ‘해방’ 직후의 시기에는 여맹 간부였던 엘리트 여성들이 주된 필자였다는 것, 1950년대부터는 필자가 다른 여자들로도 확대되어, 동포사회의 문제점을 깊숙이 파고드는 글도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은 적지만, 민단 주변 여성들의 수기나 에세이도 수록했다.

다음으로 3) 일본에 태어나고 자라서(53편)는 재일 2세 여성의 에세이(18편), 소설(4편), 시(31편)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어 작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어로 쓰였다. 조국에 갈 수 없는 상태로 차별이 심한 일본 사회에서 자기자신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2세들의 특유의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기록한 작품이 많다.

4) ‘학교 속의 소녀들’(22편)에는 2세 소녀들이 학교의 숙제로, 학교, 일본 사회, 조국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쓴 작문을 모았다. 글쓴이의 대부분은 조선학교에 다녔었던 소녀들이지만, 작문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상황이나 남북 조선 정세가 소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학교에서 쓰여진 작문에 더하여, 같은 시기에 쓰여진 야스모토 스에코

6 그 후에 완성한 재일조선인 문학사는, ‘해방’ 후의 여성들의 식자 학습과 작문을 논하는 것으로부터 그 서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송혜원,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의 『니안짱』에 수록된 작문도 일부 게재했다. 『니안짱』은 일본의 소학교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소녀가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쓴 일기를 편집한 것으로, 발표 후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된 서적이다. 양자를 나열함으로써, 조선학교와 일본의 학교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소녀들의 작문에도 반영되어 있음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5) ‘고향과 조국과 일본 사이’(21편)는 이동이나 이산에 관계된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작문을 모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직후의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의 귀환, 1946년쯤부터 증가한 남조선/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소위 ‘밀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귀환(1959년~1983년)에 대해 쓰여진 수기나 에세이, 남이나 북에 사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 등이다.

6)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12편)는, 1947년쯤부터 시작된 GHQ와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탄압에 대해서, 여성들이 조선학교의 학생, 교사, 어머니라는 여러 가지 입장에 서서 민족교육 옹호에 대한 생각을 적어놓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투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의 축적이 있지만, 그러한 연구에서는 좀처럼 조명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보여주었다.

7) ‘남편에게’(7편)는 남편에 대해 쓴 시, 에세이, 수기 등을 모은 것이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한 시나 수기가 있는가 하면, 남녀평등 등 새로운 부부의 이미지를 꿈꾸며 결혼했지만, 결혼 후의 남편의 봉건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에 대한 실망을 적어놓은 에세이도 있다. ‘해방’ 초기의 재일조선인의 연애관, 결혼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군이다.

8) ‘아버지’(9편)는, 그리운 아버지로부터 비판해야 할 아버지까지,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생각을 제각기 그려 낸 작품을 모은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아버지는 남존여비 사상에 빠진 폭군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한 이미지 그대로인 아버지를 비판하여 페미니즘의 맹아가 보이는 글이 있는가 하면,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나 측은함을 표현한 글도 있다. 재일 여성들의 아버지와 관계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9) ‘어머니’(15편)에는 폭넓은 세대의 여성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시나 에세이를 담았다. 1세 여성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고향의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썼다. 2세 여성들은 노동과 가사 육아로 나날을 보내며 피곤에 절은 어머니, 글을 배우는 어머니, 여맹 활동가로서 조국이나 동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어머니를 경의와 함께 표현한 글이 많다. 또한, 수록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를 테마로 한 작품보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마지막으로, 10) ‘살다’에서는 나이가 많이 든 1세 여성들이 쓴 시나 작문을 수록했다. 한센병 요양소에서 구술 필기에 의한 일본어 시를 발표한 카야마 요시코의 시도 수록했다. 수록 작품은 어떤 것이든 짧지만, 그녀들이 지나간 경험 속에서 길러낸 인생관이 훌륭하게 응축되어 있다.

『재일조선여성작품집』 편집 방침은 다양한 입장에서 쓰여진 작문을 가능한 한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접근 가능한 여성의 작문 중에 대부분은 총련의 영향 하에 있는 여맹이나 조선학교의 학생이나 졸업생 등이 쓴 것이다. 그러나 『작품집』에서는 당시 재일조선인 여성과 작품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의 비율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또한 민단에 소속된 여성 이외의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작품을 의식적으로 수록했다.

여맹이나 조선학교 관계자의 작문이 많은 이유는, 총련과 전신 단체(1945년 결성의 재일조선인 연맹(조련), 후계 단체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있었다) 관계자가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들의 문해교육이나 초등 교육, 출판 활동이나 문화·문학 활동, 그 외에도 매체의 보존작업까지도 거의 전면적으로 떠맡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민단에서 대규모로 여성을 위해 문해교육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집』을 편집할 때에는 여맹 멤버가 쓴 작문의 내용과 형식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문제와도 마주할 필요가 있었다. 여맹에 소속된 사람들은 1960년 중반쯤부터 조선어 읽기 쓰기를 습득한 점,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잡지, 신문, 서적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점, 여맹의 활동가로서의 동포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맡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모두 김일성의 지도 덕분이라고 쓰게 되었다. 김일성 숭배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글은, 괴로운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화국 공민이 된 현재의 행복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형화된 형식에 끼워맞춰져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글에서, 각자의 개성을 발견해 내는 것은 매우 곤란해져 갔다. 『작품집』을 편집할 때에는 방대하게 쓰여진 이러한 작품의 수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찾아내는 데에 고심했다.

무엇보다 『재일조선여성작품집』을 일본에서 간행할 때, 편자인 필자는 조선어 작품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때 번역의 방침은 직역(literal translation)할 것과 루비(ruby characters)를 달 것, 두 가지였다.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 직역을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원문인 조선어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어 위에 자그마한 글자로 읽는 법을 기록하는 일본어 특유의 루비 사용은, 두 언어 사이의 흔들림을 지닌 재일조선인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도,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고 조선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말임을 나타내거나, 그 말을 사용하는 문맥이 일본과 다를 때, 그 점을 표현하기 위해 루비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オモニ)”의 경우는 “母”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어 단어 위에 조선어 읽기를 가타카나(외래어를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일본의 문자)로 붙였다.

번역을 할 때의 어려움은 조선어 방언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조선어를 어떻게 일본어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방언에 대해서는, 조선어 방언을 이에 상당하는 일본어 방언으로 대치하는 방법, 일본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번역할 때에 역으로 조선어 식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편자의 능력이 지닌 한계도 있어서 『작품집』에서는 표준어로 번역했다.

『재일조선여성작품집』은 재일조선인 관련 자료 총서 시리즈의 하나로서 간행되었지만, 다른 테마의 자료집에 비해 빠르게 절판되었다. 이 점을 볼 때, 일정 정도의 수요는 있었던 것 같지만, 원래 발행 부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인 자료의 수요가 적은 것을 상정해서 매우 고액이었기 때문에, 일부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자가 구입한 것으로 그쳤다. 작품집이 간행된 2014년 당시에는 일본 아카데미즘에서 여성과 관련된 연구가 현재처럼 주목받지 않았고, 재일조선인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이 충분히 활용되어 그 역할을 다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유감스럽지만 의문이 남는다.

이 작품집 간행을 통해 의도하고자 한 것은 일본 속에서 가장 약한 입장에 처해 있는 식민지 출신 여성의 고생담과 같이 여겨지거나, 그러한 전형화된 인식 하에서 일면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회피하고,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자료집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편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구자 대상의 비싼 자료집으로 출판되게 된다. 재일조선인 여성의 작품을 어떻게 폭넓은 독자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큰 과제로 남았다.

4 1세 여성들의 작문을 읽다

이 장에서는 1세 여성들이 조선어나 일본어로 쓴 작문을 읽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투고, 수기, 작문은 1953년부터 1982년까지의 약 35년간의 간격이 있고, 당시 필자의 나이도 같은 1세라고 하더라도 2~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또한 조선어로 쓰여진 작품과 일본어로 쓰여진 작품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작문을 언어별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하, 조선어작품, 일본어작품 순으로 살펴본다.

4.1 조선어 작품

거의 모든 조선어 작품은 여맹에 속한 사람들이 쓴 것이다. 여맹 기관지 『녀맹시보』(1947-1949년) 이외에, 재일조선인들의 주요 미디어였던 『해방신문』과 후계지인 『조선민보』, 『조선신보』에 여성들의 작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해방’ 직후에 쓰여진 여맹 간부들의 에세이나 논설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나 이상적인 고부간의 관계가 테마가 되었다. 1950년대 조선전쟁 전후에는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출판물은 일제히 정간 혹은 폐간되었고, 『해방신문』도 1950년 8월에 정간 처분을 받았다. 그 후, 1952년 5월에 복간된 후에는 신문 투고란에 여성 필자가 간간히 보이게 되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동포 남성 비판이었다. 『해방신문』에 마련된 “남성들께 대한 녀성들의 부탁”이라는 코너에 투고된 기사를 보도록 하자.

가정에 있는 부인들이 가난한 살림을 맡아가지고 아동교육 기타 모든 생활을 간알쁜 두어깨에 지고 종일 허덕이고있는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어본일이 있을까요? 남성활동가여러분! 부인에게 감사하는 껌과 니야라도 한번전개할 용기는 없을까요?

(리순자, 「남성들에 대한 녀성들의 부탁」, 『해방신문』, 1953.4.16.)*

*은 『재일조선여성작품집』에 수록된 작품, 이하 같음)

동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진보적인 조직 활동가인 남편들이,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봉건적인 모습 그대로 생활하고 있음을 아내의 입장에서 통렬하게 비판한 글이다. 그 이외에도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남성들은 반성하라, 더욱 가사와 육아에 참여해라, 부인들의 부담이나 가계를 생각하지 않고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습관을 고쳐라, 여성 해방 없이 남성들의 진정한 해방도 없다는 것을 자각해라, 동포 기업은 일본인 여성 대신에 2세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라 등의 요청이 실렸다.

그렇지만 이 코너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총련 결성에 맞춰서 이뤄진 조직 내 방침 전환이 있었고 그 일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총련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남녀 평등 사상을 이상으로서 내걸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재일조선인 남성들의 사고방식이 급격하게 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 사회 체제에서는 젠더 불평등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일조선인 커뮤니티 내의 젠더 시점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 했던 움직임도 감지된다⁷.

그렇지만 1955년 총련이 결성되고 재일 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상황이, 1세 여성들의 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일에 크게 공헌했던 것은 확실하다.

7 커뮤니티 내의 남존여비 사상을 고발한 김인자,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낡은 사상을 버리자」, 『조선민보』, 1960.5.30.에 대해서, 여성 해방보다도 민족 해방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반론한 황보옥자, 「기본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동경·김인자씨의 의견에 대해서」, 『조선민보』, 1960.6.8.의 응답은, 당시 총련 조직 내의 사상적 조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는, 1956년 8월 시점에서 이미 시내 10개의 여맹 지부에 21개소의 서(총련이 운영하는 식자교실. 오전 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인용자 주)가 개교했고, 420명의 여성이 배웠다고 한다⁸. 이 학교에서는 “이제까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30세부터 60세까지의 어머니들”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배웠다. 조선어뿐만 아니라, 시영 전철의 정류장 이름 등 실용적인 일본어나 산수도 배웠다고 한다.

이때쯤 쓰여진 것이 이하와 같은 연하장이다. 당시 57세였던 여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 것이다.

양육가, 이렇게 글도 어려워 어떻게 하고. 그간 몸 건강하야. 언제나 나면 결혼 할 것이나 너자는 이십세가 나면나 무집을 가는 것이 정한 사슬 인데 분주한 이 세상 언지나 나면 활발하게 살 수 있을까.

(「고성성씨(57)이 오전 학교의 강사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 편지」, 『조선민보』, 1957. 7. 20.)

이것은 조선어 읽고 쓰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여성이, 손자 같은 나이의 제일 2세 여성 강사인 “양육”(향육)에게 보낸 엽서이다. 1930년대 후반 출생으로 보이는 젊은 나이의 강사는, 아마도 민족의식과 여성해방 사상에 눈을 뜨고 조선어를 배워, 그것을 동포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강한 사명감을 가졌을 것이다. 나이 든 학생으로부터 생각지도 않게 빨리 시집을 가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받고는 쓴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듯하다. 이 편지에는 식민지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글을 매개로 한 조선인 여성 사이의 세대를 초월한 교류의 순간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에도 총련 계열의 매체는 여성들의 작문을 일상적으로 소개했다. 1959년 말의 니이가타-청진 간의 귀국선 취항은 1세 여성들의 조선어 학습열을 폭발적으로 높였다. ‘생활학교’에서 ‘성인학교’로 이름을 바꾼 식자교실에서 많

8 「확대되는 모국어 학습열: 재오사카 조선부인」, 『국제신문』, 1956.8.5.

은 이들이 배웠다.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행물도 계속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다. 1961년에는 『조선민보』에 이어서 『조선신보』가 총련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조선신보』의 마지막 면은 가정생활, 여맹의 활동, 총련 주변 여성들에 관한 기사를 빈번히 다뤘다. 그 속에는, 작품의 현상모집, 독서운동, 일기를 쓰는 캠페인 등이 행해졌다. 항일 빨치산 투사 김명화, 김일성의 모친인 강반석을 모델 삼아 재일조선인 여성들은 고향 생각, 어머니에 대하여, 정치 정세, 공화국 공민이 된 행복 등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쓰여진 작문 중에 글을 습득한 기쁨을 쓴 조선어 작품 세 편을 살펴보고 싶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으로 살펴볼 1세 여성들의 일본어 작품의 주요 테마와 공통된다. 언어의 차이나 식자 학습의 차이를 넘어서, 문자 세계와의 만남이 얼마나 그녀들의 인생에 큰 충격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처음 인용하고 싶은 것은 1955년에 쓰여진 김봉희의 수기 「나의 결심」이다.

학교에 어머니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렇게 느끼었습니다. 벽에 여러가지로 많이 글이 써여 있었으나 나는 하나도 읽지도 못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글?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나의 가슴 속에서 불타습니다. 돌아와 같이 사는 ‘고경자’ 동무에게 그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자’ 동무말이 “공부할 마음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있다면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공부를 합시다”라고 말 하셨습니다. 그 때 나는 결심 하였습니다. 그후 시작한 것은 거년 8월13일이 었습니다.

그간에 여러가지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선생님의 숙제를 하노라고 공부하는 중에 모르는 말이 있어서 나의 어린아이 ‘선자’에게 “예 이것은 무어라고 하느냐?”고 무르니까 그때 마침 그애가 성이 나서

9 1961년에는 4천 명, 1965년에는 1만 명 이상이 성인학교에서 배웠다고 한다.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 제12차 중앙대회 결정서』, 1961.5. 및 한덕수, 『주체적 해외교범! 운동의 사상과 실천』, 미래사, 1986, 209쪽.

나의 무름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중에 있는 ‘고쓰가이’를 주니까 성이 풀리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와도 우리가 결심만 하면 못할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배운 것도 선생님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희, 「나의 결심」, 『해방신문』, 1955.10.18)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자신의 딸과 거래를 하는 장면이 우스꽝스럽고 재밋게 묘사된 작품이다. 여성이라서 혹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결심만 한다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1950년대에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극을 받은 어머니가, 조선어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후 불과 수년 후에 시작된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탄압과 그에 대한 민족교육 옹호투쟁을 거쳐, 총련 결성 전후에 조선학교의 재건이 급격히 진행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머니들의 식자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인 학교를 통하여 나는 40 평생 체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을 체험하였으며 말이나 글로써 이루 표현하지 못할 만 한 삶의 보람을 느끼었습니다. (...) 나는 조직 활동가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과 조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총련은 고마운 것입니다. 나같은 일자 무식한 사람을 이처럼 이끌어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녀성들은 부모와 남편이나 잘 섬기고 아이나 많이 낳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옛말로 되었습니다. 세상사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교양을 더욱 높임으로써 정말로 착한 주부로, 안해로, 어머니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혹 가정 사정 때문에 성인 학교에 나갈 틈이 없다는 녀성들이 있으나

나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변명이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신의 각오를 굳게하면 배우고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리정애, 「성인학교 졸업을 앞두고-상급반을 졸업하는 기쁨」, 『조선신보』, 1964.4.20.*)

리정애는 주부, 아내, 어머니라는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되었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글을 배워서 교양을 높이고, 사회와 접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말이나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안 것 또한,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손에 넣은 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용했던 작문의 작자처럼, 리정애는 자기 자신이 “각오”를 하기만 한다면 세계를 넓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여성들 또한 오랫동안 사로잡혀 온 유교적 젠더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인용하려는 수기, 「밝고 맑은 세상은 꿈 같은 세상」도 1960년대 중반에 쓰여진 것이다.

밝고 맑은 세상은 꿈 같은 세상입니다. 저는 성인 학교에서 글을 배운 덕분에 밝고 맑은 세상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적마다 저는 지나 온 옛날을 생각하였습니다. 정치 없이 일본으로 건너 온 우리 식구들이 헐벗고 굶주리던 생활들을... 그리고 코를 흘리는 아홉살에 일본인 공장에서 일을 하여 18전의 일급을 받은 일들을... 추운 겨울 날 눈 우에 앉아서 얼음 같은 찬물에 빨래를 한 때면 손은 터져 피가 흘렸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일급을 일본 놈에게 속하여도 글을 모르는 탓으로 말 한 마디 못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글 배우리란 꿈에서 밖에 생각 못 하던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글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 얼미다 좋은 세상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옛날과 다름 없는 일본 땅이나마 우리 조선 사람들의 처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신 아름다운 제 나라 강산에 제 손으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공화국의 떳떳한 국민입니다.

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문옥체, 「밝고 맑은 세상은 꿈 같은 세상」, 『朝鮮新報』, 1964.12.5. *)

문옥체는 읽고 쓰기가 가능해진 이후의 매일을 “밝고 맑은 세상 속”, “꿈같은 세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조선어 읽고 쓰기를 습득함에 따라,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며,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주의 탓이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녀는 역사 속에 자신의 경험을 위치짓게 된 것이다. 이 수기는 또한 조선어 식자 학습이 “공화국 공민”이라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획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4.2 일본어 작품

1세 여성들이 일본의 공립 야간 중학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타카노 마사오가 주도한 야간 중학 개설운동이 1960년 후반부터 시작됐는데, 1세 여성들은 그 성과의 혜택을 얻는 형태로 일본어 문해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야간 중학교 개설은 도시에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학생도 도쿄나 오사카 등에 거주하는 여성에 한정되지만, 원래 재일조선인은 도시에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를 얻은 사람은 적지 않았다.

그 밖에도, 카나가와 현 카와사키시나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라고 하는 조선인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문해교육이 기획되어 실행되었다. 처음에는 총련과 관계가 깊지 않은 여성들이 야간 중학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련 주변의 여성들에게는 조선어 학습의 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쓰여진 일본어 작문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별로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한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그녀들의 그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어 식자 학습이, 보통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문자로 재현한 것이었던 데에 비해, 일본어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도 있었다. 조선어 작문의 경우, 문해 교육 초기부터 유창하게 쓰여진 것이 많은 데에 비해, 일본어 작문의 경우는 분량도 적고 서투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것은 그 때문이다.

처음으로 인용하려는 것은 ‘괴로웠다 슬펐다’라는 제목의 작문이다.

제가 어릴 때 공부 안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자신의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회람판을 보는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곤란했고, 괴로웠다. 슬펐다. 시청과 은행에서도 글자를 쓸 수 없어서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습니다만, 좀처럼 어렵네요.

(백금옥, 「괴로웠다 슬펐다」, 『おとなの中学生(어른인 중학생)』, 東大阪市立長栄中学校夜間学級, 1982.)

작자인 백금옥은 일본어로 읽고 쓰지 못해서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해 왔는가를 장황하게 쓰고 있다. 이름을 쓸 수 없었던 탓에 시청이나 은행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용무를 보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회람판(지역사회에서 연락 문서 등을 회람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게시판: 필자 주)을 옆집에서 건네받아도 읽을 수 없다. “곤란했고, 괴로웠다. 슬펐다”라는 짧은 말이, 그 고통을 한층 더 심각한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한편, 자신의 언어로 그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글쓴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둔 한을 다소나마 풀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상상하게 되기도 한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박성진이라는 여성이 쓴 ‘정말로 기쁘다’라는 제목의 작문이다.

나는 옛날 일은 왜그런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쟁으로 고생도 했었죠. 저도, 물론 고생했습니다.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겠죠.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야간 중학에 와서, 조금이라도, 작문을 쓸 수 있

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잘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기쁩니다.

(박성진, 「정말로 기쁘다」, 위의 책)

“옛날 일은 왜그런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한 구절로부터, 글쓴이가 겪어 왔을 험난했던 인생의 도정이 떠오른다. 이 창립 10주년 기념 문집을 엮으면서, 야간 중학교 교사는 아마도 학생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도록 지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성진은 옛날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교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교사 측의 요청이나 의도와 달리,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인용할 작문의 저자인 장규정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남자이든 여자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여성이다. 소학교나 고등소학교에 잠깐 다니거나, ‘해방’ 후 조선학교에 단기간 동안 다녔지만, 다닐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도중에 그만둔 채로 어른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 처음 입학했던 당시에는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시간이 걸렸을 때, 몇번이나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만, 그 때 마다 며느리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끈기있게 버텨왔습니다. 사람이라면,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에는 한자 한 글자에 의미가 있고, 한자 두 자를 조합하면 속어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문의 표제어도 대충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통학정기권을 살 때도 사람들 앞에서라도 뽐내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할 때는 누군가 데려갔지만, 지금은 제 것은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선어를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글자를 배우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하고, 꿈을 계속 쫓아 가고 있는 요즘 이 때입니다.

(장규정, 「야간 중학에서 배우며」, 위의 책)

장규정은 도중에 그만두면 “며느리”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으로 야간 중학에 계속 다닌 것 같다. “며느리”가 야간 중학 입학 수속을 해줬을 것이다. “한다고 결정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할 필요”라는 부분에서는, 앞서 인용했던 두 편의 조선어 작문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문자 학습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희망을 품고” “꿈을 계속 좇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자 학습을 통해 밝은 미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쓴 부분은, 20년 전에 쓰인 문옥주의 조선어 글과도 공명한다.

이 작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규정이 일본어를 읽고 쓴 다음에 조선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학교를 “다닐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만두어 버린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그녀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선어를 익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금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 읽고 쓰기를 습득한 경험이 얼마나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는지를 이러한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구축과 결합되어 있던 총련의 조선어 식자 학습의 성과와는 다른 문맥이지만, 1세 여성들이 조선어로 무언가를 써서 남겨 놓았을 가능성도 시사해 주고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냉전 하의 일본 속 불안정한 법적 지위나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 등의 이유로,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북에 있던 ‘조국’의 사람들이 일본에 드나드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민족단체가 재일 여성들의 조선어 문해교육을 책임졌지만, 이런 상황에도 조국의 남북대립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직 총련과 연결된 민족단체만이 문해교육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5년 총련 결성 이후 조선어 식자 학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내면화와 거의 직결되었다. 1세 여성의 조선어 작문의 대부분에는 이러한 경향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한편,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민단의 영향 하에 있던 1세 여성에게는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1세 여성들이 일본어의 식자 학습을 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지만, 여기에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가 명확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양심적인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과 다시 만난 여성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1세 여성들이 쓴 일본어 작문에는 관청이나 은행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쓸 수 있게 되거나,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인 외국인등록 갱신 수속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다고 느끼는 아이러니한 내용도 종종 보인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지배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러한 일본어 작문은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식자 학습의 목적과 그 효과는 조선어와 일본어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문자를 획득하는 것으로 1세 여성들의 세계관이 크게 변하고, 동포 사회, 일본 사회, 국가라고 하는 가정 밖 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 글에서는 1세 여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여성들이 스스로 쓴 작문에 주목했다. 인터뷰 조사가 주가 되어 왔던 여태까지의 조사나 연구에서는 문자 자료를 다시금 살펴보는 일은 적었지만, 1세 여성이 쓴 작문은 실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작문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세 여성들이 일본어와 조선어의 두 언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일본어 문헌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 총련 영향 하에 쓰여진 사람들의 작문을 외면해왔다는 점(그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은 반공주의와 식민지주의가 결부된 반‘북조선’ 감정이 있다), 공문서를 상위에 두고 개인의 글쓰기를 하위에 두는 것과 같은 사료의 서열화,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만을 비평 대상으로 삼는 문학 연구의 편협함 등이 있다.

지금까지 1세 여성의 예고 도큐먼트의 수집, 보존, 공개 작업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녀들의 문학 자료에 대한 접근을 곤란하게 한 원인의 하나였다. 1세 여성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학 작품, 예고 도큐먼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인 그녀들의 작문 전부를 포함해서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영순이라는 여성이 1963년에 쓴 조선어 작문을 소개하는 것

으로 이 글을 끝마치고 싶다. 동포 여성들을 향하여 일기를 매일 쓰기 위한 비결을 조언한 글의 한 구절이다.

나의 오늘날까지의 생활이 너무나 풍파에 차고 곡절이 많은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그 가지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다시 생각하여 그것을 꼬박꼬박 적어 후대들에게 <어머니는 일본에서 이렇게 살았단다>고 떼떼이 이야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순, 「나의 일기장으로부터」, 『조선신보』, 1963.11.2. 조선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써서 남기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이 느껴진다. 즉 이 글에서는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존재인 1세 여성의 절실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은 박영순뿐만이 아니라, 글을 배워서 무언가를 쓰려고 했던 1세 여성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1세 여성의 작문에는, 이제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녀들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풍부한 잠재성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녀맹시보』, 『해방신문』, 『조선민보』, 『조선신보』, 『국제신문』, 『조선여성』

단행본

かわさきのハルモニ・ハラボジと結ぶ2000人ネットワーク生活史聞き書き・編集委員会, 『在日コリアン女性2000人の軌跡—国境を越え, 私はこうして生きてきた』, 明石書店, 2009.

むくげの会編, 『身世打鈴 在日朝鮮女性の半生』, 東都書房, 1972.

伊地知紀子, 『消されたマッコリ。: 朝鮮・家醸酒文化を今に受け継ぐ』, 社会評論社,

2015.

稲富進, 『ムグンファの香り—全国在日朝鮮人教育研究協議会の軌跡と展望』, 耀辞舎, 1988.

_____, 『文字は空気だ—夜間中学とオモニたち』, 耀辞舎, 1990.

岩井好子, 『オモニの歌—四八歳の夜間中学生』, 筑摩書房, 1984.

_____, 『オモニのひとりごと—五六歳の夜間中学生』, カラ文化情報センター, 1988.

金栄・梁澄子, 『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房総のチャムスを訪ねて』, 新宿書房, 1988.

呉文字・趙榮順, 『わたちの在日: 「鳳仙花」二二年間の珠玉文集』, 新幹社, 2015.

康潤伊・鈴木宏子・丹野清人編, 『わたしもじだいのいちぶです: 川崎桜本・ハルモニたちがつづった生活史』, 2019.

宗秋月, 『宗秋月全集: 在日女性詩人のさきがけ』, 土曜美術社出版, 2016.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2012.

小熊英二・姜尚中編,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2008.

西川祐子, 『日記をつづるということ: 国民教育装置とその逸脱』, 吉川弘文館, 2009.

川田文子, 『ハルモニの唄: 在日女性の戦中・戦後』, 岩波書店, 2014.

創立一〇周年記念文集『おとなの中学生』, 東大阪市立長栄中学校夜間学級, 1982.

宋恵媛,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宋恵媛編, 『在日朝鮮女性作品集』, 緑蔭書房, 2014.

長谷川貴彦編, 『エゴ・ドキュメントの歴史学』, 岩波書店, 2020.

朴日粉・金潤順, 『生涯現役—在日朝鮮人 愛と闘いの物語』, 同時代社, 2004.

朴日粉, 『いつもお天道さまが守ってくれた—在日ハルモニ・ハラボジの物語』, 梨の木社, 2011.

李杏理, 「在日朝鮮人の濁酒と生活経済: 1939-1949」(博士論文),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2021.3.

송혜원, 『「재일조선인문학사」를 위하여—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논문

宋連玉, 「在日朝鮮人女性とは誰か」, 『継続する植民地主義』青弓社, 2005.

李杏理, 「脱植民地と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攪乱 : 「解放」後の濁酒闘争からみるジェンダー」, 『ジェンダー史学』13号, 2017.

Abstract

Reading Zainichi Korean Women: An Attempt to Visualize First-Generation Women

Song Hyewon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visualizing the little-known first-generation Zainichi Korean (Korean residents in Japan, originated from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women through their writings. It treats the period approximately 35 years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before the generational chang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se women simply vanished, leaving no writings behind. In fact, Zainichi Korean women began acquiring literacy in Korean and Japanese and learning how to write. A considerable number of Zainichi writings can be found in previously overlooked Korean-language writings, especially writings by women who were members of the pro-Pyongyang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ŏn).

The structure of the paper is as follows. It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representation of Zainichi Korean women. Next, it discusses the editorial process and issues surrounding the publication of *the Anthology of Writings by Early Zainichi Korean Women 1945-1984* (2014, Japan). Finally, the paper analyzes these women's texts, written in Korean and Japanese.

Key Words: First-generation Korean Women in Japan, Zainichi Korean, Egodocuments, Literacy Education, *the Anthology of Writings by Early Zainichi Korean Women*